



History and Persons of The Reformation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5

179 얀 후스(John Hus)

이상규(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역사신학)

얀 후스 (John Hus)

이상규(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역사신학)



중세 하에서 또 한 사람의 위대한 개혁자가 얀 후스(John Hus, 1372/1373-1415)였다.¹⁾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 프라하(Prague)의 개혁자로서 15세기 서구역사에서 위대한 교회개혁자이자 체코의 민족주의 운동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그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준 영국의 위클리프(c.1330-1384)는 러터워드(Lutterworth)의 목사관 침대에서 임종을 맞았으나 후스의 생애는 비극적이였다. 교회 개혁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삶을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1415년 콘스탄츠(Constance)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7월 4일 화형에 처해졌으나 살아있을 당시 자신이 선택한 개혁자의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가 화형을 당할 당시 위클리프는 죽은 후 30년이 지났으나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시신은 다시 화형에 처해졌다. 위클리프의 저서는 불태워졌고 금서로 규정되었다.

후스는 화형을 당하기 전 한마디 말을 남겼다. “당신들은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큰 황새가 날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로부터 꼭 102년이 지난 후 루터는 역사의 무대 앞으로 인도되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 프라하의 구시가 광장에는 후스가 화형을 당한지

1) 후스에 대한 대표적인 전기로는 Victor Budgen, *On Fire For God* (Hertfordshire: Evangelical Press, 1983)가 있다.

500주년을 기념하여 1915년에 세운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진실을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라.”

삶의 여정, 수학, 신부로서의 활동

그렇다면 얀 후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²⁾ 후스는 보헤미아의 남부 후지네츠(Husinec)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했다. 출생한 곳의 지명을 이름으로 하여 후스(Hus)라고 부르게 되었다. 약 13살 때 고향 근처 프라차티스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고, 1390년에는 프라하 대학에 입학하여 4년간 수학하고 22명 가운데 6등으로 문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공부를 계속하여 1396년에는 석사학위를 받고 프라하대학 문학부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1402년에는 사제 서품을 받은 후 베들레헴 예배당의 주임 사제 겸 설교자로 임명되었는데, 이때 그는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곳이 체코에서의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후스는 1412년까지 설교자로 활동했는데, 이 10년간 후스는 국왕과 동료 교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적 영웅이었다. 후스는 이곳에서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 설교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3천명이 운집했다고 한다. 현재에도 이 예배당이 건재하고 있는데, 우선 외관이 다른 성당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고 단순하고 예배당 내부도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³⁾

위클리프의 영향

그렇다면 후스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위클리프의 사상을 접하고 교회 개혁을 말하게 되었을까? 위클리프의 작품들은 1401년경부터 보헤미아 프라

하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서적을 통해 후스는 위클리프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독일의 교회사학자 니안더(August Neander)에 의하면 후스가 특히 콘라드 발덴스테인(Conrad von Waldenstein, d. 1393)을 통해 위클리프의 사상을 접했다고 한다. 후스가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때 이 말은 그가 보헤미아 자체의 개혁운동(Bohemian Reform Movements)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니안더는 후스가 보헤미아 개혁의 선구자 매튜(Matthew of Janov)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후스파에 대한 연구자인 매튜 스피카(Matthew Spinka)도 이점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떻든 보헤미아가 영국의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383년 영국왕 리처드 2세(Richard II, 1377-1399)가 보헤미아의 안나(Anna)공주와 혼인함으로써 두 국가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보헤미아의 많은 학생들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드려 조국, 특히 프라하대학으로 전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1402년부터 후스에 의해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후스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로서 이미 설교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위클리프의 사상이 보헤미아로 전파되자 1403년 프라하대학의 독일인 교수 휘브너(Johann Hübner)는 위클리프의 저서에서 45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프라하대학이 정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라하 대학 교수들은 반대하여, 결국 독일인 교수와 불화가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당시의 교회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교황청은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피사에서 교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것이 1409년 3월 25일 개최된 피사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대립하고 있던 두 교황, 곧 로마의 그레고리 12세와 아비뇰의 베네딕트 13세의 퇴임을 결의하고, 밀란의 대주교 피에트로 필라르기(Pietro Philarghi)를 합법적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그가 알

2) 얀 후스의 생애 여정에 대한 주요 정보는 J. D. Douglas,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Zondervan, 1978), 492-493에 의존하였음.

3) 후스는 재단 위의 각종 성상을 제거하고 사제들과 귀족, 평민의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 현재 이 교회 2층에는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는데 프라하에서의 개혁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 베들레헴 교회당은 1661년 가톨릭 성당으로 개조 되었고 1786년에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1950년 이 건물을 다시 복원했는데, 이것이 현재의 건물이다. 후스 당시의 건물 벽 3개가 남아 있다.

렉산더 5세(Alexander V, 1409-10)였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으나 기존의 두 교황이 퇴임을 거부했다. 결국 3사람의 교황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보헤미아의 국왕 벤체슬라스(Wenceslas)와 후스를 포함하여 프라하대학 교수들은 새로 선출된 알렉산더 5세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프라하의 대주교인 츠비넵(Zbynek Zajic of Hasmburk)과 독일인 교수들은 그레고리 12세를 지지하였다. 국왕이 대주교에게 새로운 교황을 지지하도록 요구했으나 대주교 츠비넵은 이를 거부하고 베들레헴 예배당을 포함한 모든 예배당에서의 설교를 금지시켰다. 후스가 이를 거부하자 후스는 정죄되었고, 이 문제는 교황청으로 이첩되었다. 새로 선출된 알렉산더 5세는 불란서, 영국, 독일의 일부지역에서만 지지를 받았고, 교황직에 오른 지 1년 만에 사망하였다. 악명 높은 요한 23세가 그 직을 계승했다.

면죄부 판매 비판

1412년 사태는 더 심각해졌다. 교황 요한 23세는 전쟁수행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면죄부 판매를 계획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래서 보헤미아에서도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었다. 이 때 후스는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거룩한 것들을 매매하는 행위는 이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후스는 면죄부 판매만이 아니라 교회의 실재적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프라하 시민은 반기를 들었고, 교황의 모조 교서를 불살랐다. 이 봉기 중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 청년이 참수되는 비극이 일어났고, 교황청은 후스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그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교황으로부터 파견된 심문관은 후스에게 만약 23일 이내에 면죄부 반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후스에게 로마로 출두하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대신 변호인을 보냈다. 이 이유로 추기경 드 콜로나(Cardinal de Colonna)에 의해 후스는 파문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헤미아의 국왕은 자신의 종교정책을 따르지 않는 독일

인 교수들의 투표권을 박탈하자 독일인 교수들은 프라하대학을 떠났다. 이렇게 되자 후스가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처럼 후스 지지자의 반대자들이 대립한 가운데, 추기경 스테파네스키(Peter degli Stephaneschi)는 후스는 파문상태 하에 있는 자임을 공표하였고, 프라하는 후스가 있다는 이유로 성사금지령을 내리려 하자 후스는 1412년 10월 프라하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스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한다고 하면서, “주님이야말로 뇌물에 영향 받지 않고, 거짓 증인에 속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다.

피난과 문필활동, 개혁사상

후스는 1402년 이래 10년간 봉했던 베들레헴 예배당을 떠나 보헤미아의 남부 지방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이때로부터 2년여간 문서 활동에 몰두했다. 보헤미아어와 라틴어로 저술했는데, 자신을 반대하는 츠노이모의 스타니슬라프(Stanislav of Znojmo)와 팔렉(Stephen Pálec)과 논쟁하기도 했고,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했다. 이 기간 동안의 저술은 후스의 사상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소중한 문서들이다. 그가 남긴 보헤미아어로 쓴 『설교집』(Postil)과 『신앙과 십계명 주기도문 해설』(Expositions of the Faith, of the Decalogue, and of the Lord's Prayer), 그리고 라틴어로 쓴 『교회론』은 중요한 문헌이다.

그렇다면 후스의 개혁사상이란 무엇인가? 위클리프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 사실이지만 후스는 첫째, 성경의 절대권을 주장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했다. 둘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점을 주장하고, 교황은 무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셋째, 성직자들의 도덕적 삶의 개혁을 주창했다. 즉 후스는 교황과 감독들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비판하였다. 그는 성직자들의 탐욕과 사치, 게으름 등 비도덕적인 생활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세속 정부는 성직자와 신자들의 삶을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넷째, 후스는 당시 교회의 오

도된 교리를 비판했는데, 특히 면죄부 제도를 비판했다. 다섯째, 비성경적인 성찬제도를 비판하여 성찬의 떡만이 아니라 잔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째, 후스는 예배의 개혁을 추진하여, 성경적인 설교, 자국어 설교, 그리고 회중 찬양을 회복했다. 그는 회중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하여 교회에서 회중 찬양을 회복시켰다.⁴⁾

비록 그는 교황청의 미움을 받았으나 국왕과 보헤미아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1414년에는 귀족이자 고위관리인 헨리 레플(Henry Lefl of Lazany)의 후의로 크라코벡(Krakovec)에 있는 성으로 옮겨갔다.

콘스탄츠회의, 이단, 순교

한편 피사회의에서도 교황청의 분열을 해결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하게 되자 1414년 다시 교회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개최에 독일 왕 지기스문트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는 교황청의 혼돈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회의는 11월 1일 보덴 호숫가에 있는 작은 도시 콘스탄츠에서 열렸다. 이 회의가 콘스탄츠회의(The Council of Constance, 1414-1418)였다. 처음에는 추기경을 비롯한 40여명의 고위성직자들만 참석했으나 곧 감독, 대감독 뿐 만 아니라 종교계의 저명인사, 신학자 등이 참석하여 총인원은 5,000명에 달했다. 이 회의에는 교황 요한 23세, 신성 로마황제 지기스문트(Sigismund)도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중요한 의제는 단일 교황하의 교회의 통일과 교회 개혁, 그리고 이단, 곧 후스 처리 문제였다.

후스는 이 회의에 소환명령을 받았고, 황제는 여행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오랜 숙고 끝에 후스는 소환에 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10월 11일 크라코벡을 떠나 20여일 후인 11월 3일 콘스탄츠에 도착했다. 그의 개혁의 동료였던 제롬(Jerome of Prague, c.1371-1416)도 동행했다. 콘스

탄츠에 도착한 그는 처음에는 어느 미망인 집에 거주했으나 후스는 교황 거처로 유인되었고, 이어 도미니수도원 감옥에 6개월 간 투옥되었다. 황제의 신변 보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황 이노센트 3세(1198-1216)는 오래 전에 “하나님과과의 신의를 저버린 자에게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추기경들은 회의가 열리기 전에 후스를 감금시킨 것이다. 당시 종교재판에서는 피고의 무죄가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일단 유죄로 취급했다. 도미니 수도회는 교황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고문기술을 개발한 악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후스는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순수한 강철처럼 정련되어 있었다.

곧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심문관이 임명되었고, 후스는 이단 심문을 받게 되었다. 심문관들은 후스가 위클리프의 입장을 따른다는 점을 확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스는 이 혐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하자 파렐(Stephen Pálec)은 후스의 주저인 『교회론 *De ecclesia*』에서 42개 항목을 발췌하였고, 파리 출신의 종교법학자인 장 제르송(Jran Gerson)은 후스가 이단이자 오류를 범했다는 20여항의 혐의점을 지적한 문서를 공의회에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의회를 주도하던 요한 23세는 교황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폐위되었다. 전임교황 독살, 성직매매, 교회제정 낭비 등이 문제시 됐기 때문이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재 조직되었고, 고틀리벤(Gottlieben) 성으로 옮겨진 후스는 새로운 위원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뻬에르 다이이(Pierre d'Ailly, 1350-1420) 추기경이었다. 후스는 1415년 6월 5, 7, 8일 열리는 공의회 앞에서 공적인 청문회를 갖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반대자들이 날조한 혐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만이 허용되었다. 반대자들은 후스가 위클리프 이단의 추종자임을 증명하려 했고, 여러 가지 거짓 혐의를 씌우고자 했다. 그리고 그 혐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후스는 자신이 주장하지 내용을 철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위증이라며 항의했

4) 스티븐 니콜스,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 이야기』 (부흥과 개혁사, 2009), 31.

으나 소용이 없었다. 후스는 자신의 주장이 잘못이라는 점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면 기꺼이 철회하겠다고 했으나 공의회는 이를 거부했다.⁵⁾

1415년 7월 6일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후스를 정죄하는 30개 항이 낭독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후스의 가르침을 정직하게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 그 정죄가 후스가 주장한 바가 아니었기에 후스는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의에서 후스는 완고한 이단이자 위클리프의 추종자라고 선언되었다. 콘스탄츠회의는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에 처할 것을 결의하고 세속 정부에 집행을 의뢰했다. 그의 머리에는 악마들이 그의 영혼을 갈기 갈기 찢는 그림이 그려진 종이관이 씌워졌다. 그의 책은 불살라졌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화형대에 올라 죽음을 맞았다. 그는 화형을 당했던 날 새벽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재는 라인강에 뿌려졌다. 이때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때였으나 그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그도 다시 화형에 처해졌다. 그의 저서 또한 금서로 지정되었다. 후스의 친구이자 개혁의 동료였던 프라하의 제롬도 1416년 5월 화형에 처했다. 그는 후스가 체포될 때 콘스탄츠에서 도망쳤으나 다시 잡혀 투옥되었다. 황제 지기스문트는 제롬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결국 그도 화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후스의 처형 이후

콘스탄츠 공의회가 후스를 처형한 일은 보헤미아에서 반독일 반 교황 정

5) 후스가 1415년 7월 1일자로 쓴 편지가 남아 있다. “나 얀 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임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증죄를 두려워합니다.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나에 반대하여 제시된 어떤 항목들 또는 모든 항목들을 포기함을 공공연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이 내가 행했다고 말하는 것들을 전파하지 않았고,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더욱이 그들이 나의 저서들에서 발췌한 항목들에 관해 그들이 나타내는 모든 허위 해석을 나는 중요합니다. 진리에 반대하기를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또는 교회 박사들의 견해를 반박하기를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나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면 이는 마치 내가 범했던 모든 거짓과 죄들이 최후에 날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말하려고 생각했거나 말했던 모든 허위 사실들과 오류들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포기할 것입니다.” 나은성, 『이것이 교회사다』(PTL, 2013), 380.

서를 자극하였다. 보헤미아의 452명의 귀족들은 후스처형을 비난했고, 후스는 보헤미아인들의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교황청은 위틀리프의 사상을 따르는 자를 학살하라고 지시했고, 보헤미아인들의 사제서품을 금지시켰다. 또 수찬금지령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보헤미아에서는 독자적인 교회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후스파 교회였다. 후스파의 과격파는 교황청과 무력으로 대결했는데, 이것이 후스 전쟁이다. 1419년부터 1434년까지 15년간 전개된 이 전쟁은 보헤미아인들의 저항이었다.

후스파 교회는 후에 양분되는데, 흔히 칼릭스틴(Calixtines)이라고 불린 온건한 양편파와 타보라이츠(Taborites)라고 불린 급진파인데, 칼릭스틴은 로마 카톨릭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운 설교, 빵과 포주도 둘 다(both kinds) 베푸는 성찬의 시행, 도덕적 개혁의 단행, 성직자들로부터 권력과 재산의 몰수를 주장했다. 반면에 타보라이츠는 로마 가톨릭을 거짓된 교회로 규정하고 로마교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고 후스가 가르친 바처럼 교리적 개혁을 주창했다. 즉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화체설은 오류이며, 고행 및 중부성사의 폐지되어야 하고, 연옥 및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성상 및 유물 숭배는 미신이라고 보았다.⁶⁾ 이 양파는 연합하여 반 교황, 반 독일 전쟁을 치루었다. 박해와 전쟁 중에서도 남은 타보라이츠들이 새로운 집단을 형성했는데, 그들을 모라비아인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거처를 찾아 방황하던 중 18세기에는 진센돌프의 백작의 배려로 그의 영지에 정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헤른 핫트라고 불렸다.

6) 윌리엄 케논(서영일 역), 『중세교회사』(CLC, 1986), 402.